

- 주요 뉴스: 5월 FOMC 금리 동결 전망.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자회견 가능성
    - 트럼프 대통령, 파월 의장 조기 해임 가능성 배제. 금리인하 재차 압박
    - 석유수출국기구(OPEC), 5월에 이어 6월에도 일일 41.1만 배럴 원유 증산 합의
    - 젤렌스키 대통령, 러시아와의 휴전은 언제든 가능. 동맹국들의 러시아 압박 촉구
 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, 경제지표 호조 등이 영향
    - 주가 상승[+2.9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상승[+7bp]
    - 주가: 미국 S&P500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부상 등으로 상승  
유로 Stoxx600지수도 글로벌 무역 긴장감 완화 등으로 3.1% 상승
  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 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9% 하락
  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상승  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재정지출 확대 전망 등으로 6bp 상승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2.7% 하락. 한국 CDS 하락

|    |      | 5/2일    | 4/25일   | 전주말대비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5/2일    | 4/25일   | 전주말대비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5,686.7 | 5,525.2 | +2.92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4.31%   | 4.24%   | +7bp   |
|    | 유럽   | 536.43  | 520.45  | +3.07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2.53%   | 2.47%   | +6bp   |
|    | 중국   | 휴장      | 3,295.1 | -0.49% |                 | 영국    | 4.51%   | 4.48%   | +3bp   |
|    | 일본   | 36,831  | 35,706  | +3.15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29bp    | 32bp    | -3bp   |
|    | 한국   | 2,559.8 | 2,546.3 | +0.53%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9bp    | 61bp    | -2bp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00.03  | 99.47   | +0.56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406     | 388     | +18bp  |
|    | 유로화  | 1.1297  | 1.1365  | -0.60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22.68   | 24.84   | -8.70% |
|    | 엔화   | 144.96  | 143.67  | -0.89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58.29   | 63.02   | -7.51% |
|    | 위안화  | 휴장      | 7.2867  | +0.21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62.8   | 484.0   | -4.39% |
|    | 원화   | 1,401.5 | 1,439.8 | +2.73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3,240.5 | 3,319.7 | -2.39%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ì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5월 FOMC 금리 동결 전망.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자회견 가능성

- 최근 예상치를 상회한 4월 고용지표 결과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. 스왑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%로 예상(FT)
  - 특히, 연준은 경기둔화 우려,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속에서 실물지표 호조를 근거로 금리동결을 쉽게 정당화할 여지
  - 연준은 실물지표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야만 금리인하 신호를 보낼 것이며 그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우려하며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(Citi)
- 5월 FOMC에서는 관세가 금년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안정에 대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시사하며 매파적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(Bloomberg)
  -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됐으나,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연준의 물가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
  -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연말까지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3.5~4.0%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트럼프 대통령, 파월 의장 조기 해임 가능성 배제. 금리인하 재차 압박

- 현지시각 4일 공개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임기 종료 전에 해임하지 않겠다고 언급. 다만, 파월 의장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
- 한편,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 강조하면서 금년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바이든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

### ■ 석유수출국기구(OPEC), 5월에 이어 6월에도 일일 41.1만 배럴 원유 증산 합의

- 석유수출국기구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, 러시아 등 OPEC+ 8개국은 시장 상황을 검토하여 6월 원유 생산량을 일일 41.1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
- OPEC+ 소식통에 의하면 사우디가 할당량을 초과 생산하는 회원국을 처벌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일일 22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이 빠르게 폐지될 가능성

### ■ 젤렌스키 대통령, 러시아와의 휴전은 언제든 가능. 동맹국들의 러시아 압박 촉구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테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라도 언제든지 휴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 30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30일 동안의 무조건적 휴전을 촉구
- 또한,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

### ■ 시진핑 국가주석,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5월 7~10일에 러시아 공식 방문 예정

-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
- 또한, 양국 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의 추가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와 국제 및 지역 의제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

### ■ 예멘 후티 반군,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미사일 공격 단행

-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후티 반군과 더불어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하겠다고 발표.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후티 반군을 겨냥하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자는 7배로 앙갚음당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
- 이스라엘 총리의 보복 공격 발표에 이란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 반격할 것이라고 언급

### ■ 인도 정부, 카슈미르 총기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전방위적 제재 단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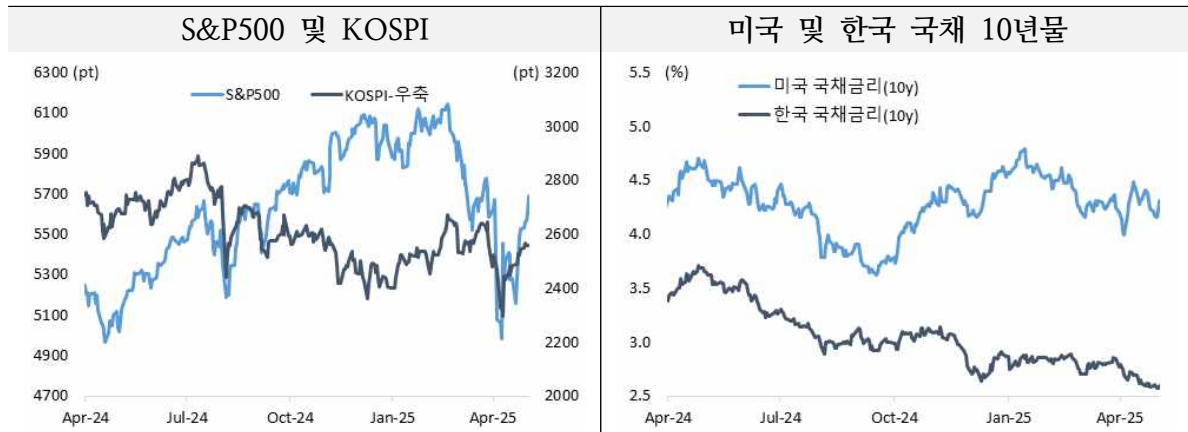
- 인도 대외무역총국이 파키스탄에서 오는 상품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해운총국도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구 입항과 인도 국적 선박의 파키스탄 항구 입항을 금지한다고 발표. 통신부는 파키스탄에서 오는 우편, 소포 교환을 중단하기로 결정
- 인도는 지난달 22일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. 이에 파키스탄은 테러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국 간 갈등 격화로 연일 교전이 이어지면서 긴장감 고조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5 현지시각 기준)

- 4월 미국 ISM 및 S&P Global 서비스업 PMI
- 4월 베트남 및 러시아 S&P Global 제조업 PMI
- 1분기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

## 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1, E-mail [wjkin@kcif.or.kr](mailto:wjkin@kcif.or.kr)